

이탈리아 노동운동과 그람시

김종법(서울대 국제대학원 EU연구센터)

I.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시작과 공장평의회 운동

1. '붉은 2년¹⁾'과 혁명의 파고

러시아에서의 혁명 성공은 유럽의 어느 지역에서나 혁명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전염병처럼 퍼졌다. 이탈리아 역시 좌파 성향의 지식인들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혁명을 낙관한 나머지 운동의 방향이 수동적으로 흘렀고, 도래할 혁명을 기다리면서 아무 대책이나 준비를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정치적 상황은 노동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는 듯 했다.

1918년 12월, 모든 성인 남자에게 보통선거권이 주어지 이듬해 11월 선거에서 사회당은 200만 표 이상을 획득, 총 159석을 차지함으로써 이탈리아의 제1정당이 되었다. 1913년 설립된 가톨릭 인민당 역시 100석을 차지함으로써 자유주의 정부는 붕괴되는 것 같았다. 당시 가장 강력한 노동단체였던 노동총동맹(CGL) 역시 회원 수가 증가해 노동자들로부터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는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토리노에서는 피아트를 중심으로 한 공장들의 내부위원회가 강화되어 이탈리아의 소비에트 조직인 공장평의회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었다.

북부부에서의 노동자 세력의 확대와 정치적 권력 강화는 전후 불어 닥친 경제적 위기와 더불어 좀 더 폭력적이고 무방봉기의 형태로 이어졌다. 특히 1919년에 들어서면서 경제 위기는 북부와 중부에서 식료품 소동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급기야 상점에 대한 약탈과 방화가 잇따랐다.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전국 각지에는 자유주의적 자치 정부가 들어섰고, 수많은 파업과 투쟁에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했다. 1919년과 1920년에도 이와 같은 정치 상황이 강화되었다.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던 혁명 분위기는 1920년 4월의 빼에몬테 지역 노동자들이 참가한 총파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흔히 '시계바늘 사건²⁾'이라 불리는 이 총파업은 결국 11일 만에 패배했다.

1) '붉은 2년'(Biennio Rosso)이란 1919년에서 20년의 2년간 유럽에 불었던 혁명의 파고가 절정에 달했던 기간을 말한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후 이탈리아 역시 사회주의 혁명의 도래를 기대하며 노동계를 중심으로 전투적인 파업과 운동을 조직화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지도부라 할 수 있는 사회당의 비협조와 강력한 조직의 부재, 그리고 자본가 계급의 대대적 유화정책과 타협으로 노동운동은 결정적 패배를 기록하고 결국에는 파시즘이 등장하게 된다.

2) 이는 경영자 측이 1920년부터 적용하려던 새로운 노동시간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시계바늘을 돌려놓았던 사건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현재도 이탈리아에는 서머타임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한 시간을 앞당기고 동절기에는 원래대로 1시간을 늦추는 시간 제도를 말한다. 당시 경영자 측에서는 1시간을 앞당김으로써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의도로 이를 시행하고자했으며, 노동자들은 이를 반대하여 1시간 앞당겼던 각 공장의 시계바늘을 원래대로 환원시켰다. 이에 경영자 측에서 공장을 폐쇄하였고, 결국 주도인 토리노를 중심으로 빼에몬테 전역에서 총파업이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1920년 8월, 금속 기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발생한 태업으로 기업주들이 공장을 폐쇄하려하자 공장폐쇄를 거부한 노동자들이 4주 동안 공장을 점거하고 스스로 공장을 경영하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운동은 실패로 돌아간다. 이것은 일련의 운동이 혁명의 파고가 절정에 달했던 순간에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혁명의 파고가 밀려나고 있는 시점에서 비조직적이고 국지적인 차원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특히 노동운동의 비조직화와 정체성 문제가 이 시기에 심각하게 대두되었으며, 노동조직 재건과 정치 지도력 부재가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새로운 노동조직 모델로서 '붉은 2년'기간 동안 이탈리아에서 조직된 공장평의회는 이탈리아 노동운동사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공장평의회는 『신질서Ordine Nuovo』라는 새로운 노동운동 문화잡지와 함께 출발하였다. 그람쉬Gramsci³⁾, 톨리아띠Togliatti⁴⁾, 따스까Tasca⁵⁾, 테라치니Terracini⁶⁾를 비롯한 도리노 사회당 지부의 젊은 운동가들이 모여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문화지'를 내걸고 1919년 6월17일에 처음 발행한 이 신문은 새로운 노동운동 조직으로서 공장평의회 조직의 목적과 의의를 선전했다.

그람쉬가 주축이 되어 주장한 이 노동조직은 러시아와 헝가리 및 오스트리아 등에서 실행되었던 소비에트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구상된 것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노동자 조직이 아니라 혁명 후의 국가 조직으로 확장될 것을 염두에 두고 공장, 건설 현장, 광산, 농장, 상점 및 일반 농민 개개인을 망라하는 모든 노동 계층의 생산 단위를 기본으로 평의회를 조직하고자 했다.

그람쉬가 구상했던 공장평의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이미 각 공장에 존재하고 있던 내부 위원회(Commissione Interna)를 기반으로 구성원을 대표하는 대표위원을 선출한 뒤 다시 대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때 선거를 통해 대략 노동자 15명 당 1명의 대표위원을 선출하고, 공장의 각 계층과 분야의 대표자를 선출한 뒤 공장대표위원회를 조직한다. 공장대표위원회가 각 지구나 구역별로 지구위원회를 구성하는 단위가 되며, 구역에 속한 모든 노동자, 즉 운전기사, 상점 종업원, 식당 웨이터, 청소부, 개인 고용 노동자 등의 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람쉬는 공장평의회를 공장이나 도시를 근간으로 하는 직종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농촌에서도 농민평의회를 조직해서 명실상부한 전국 조직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혁명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선 '조직과 규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선 도시와 공장에 국한하여 평의회를 조직했다. 노동자 대표성과 일반투표의 원리, 그리고 직장대표의

3) 안토니오 그람쉬Antonio Gramsci(1891~1937):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토리노대학 재학하던 중에 이탈리아사회당에 입당하였다. 1921년에 이탈리아공산당을 창립하여 코민테른에서 지도하게 되었다. 1926년에는 파시스트 당국에 체포되어 죽기 직전까지 감옥생활을 계속하였다. 마르크스주의의 결정론적 해석과 B.크로체의 관념철학에 반대하여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의 통일을 주장하였으며,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약점이었던 상부구조의 이론을 발전시키고 자본주의가 발달한 시민사회에서 사회혁명이 일어나는 조건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성(헤게모니)의 논리와 그 실천적 기구(당)에 대해서 참신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4) 팔미로 톨리아띠Palmiro Togliatti(1893~1964): 그람쉬와 가장 절친했던 동료로 전후 이탈리아 공산당의 당수였다. 그는 그람쉬 유고집 『옥중수고』를 편집했고, 전후 이탈리아 공산당의 당수가 된 뒤 공산주의 사상가로 '사회주의로 가는 이탈리아만의 길'을 주창하면서 사회주의를 제도권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했던 사상가이기도 하다.

5) 안젤로 따스까Angello Tasca대학시절부터 사회주의 '파쇼'에 가담할 정도로 정치적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던 인물이다. 그람쉬와는 같은 학부의 친구로 관계가 시작되었다. '신질서'지 창간 동료였고,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당위원이었지만 이내 공장평의회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게 되었다. 이후 그람쉬가 체포되기 전까지 정치적 입장과 사상에서 지속적으로 갈라지면서 정적으로 남는다.

6) 움베르토 테라치니Umberto Terracini신질서 그룹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다. 법학도로 톨리아띠의 후배이며, 따스까와 함께 사회주의 '파쇼'에 가담하여 정치 활동을 했다. 그람쉬와 정치적 입장을 오랫동안 같이하였던 사회주의 사상가였다.

원리가 고스란히 반영된 공장평의회는 1919년과 1920년 사이에 토리노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공장평의회는 '붉은 2년'간의 총파업 투쟁과 공장점거 투쟁에서 주역이었고 이탈리아 노동운동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1921년 1월 이탈리아 사회당(PSI)의 보르디가⁷⁾, 그람쉬, 따스까, 돌리아띠, 떼라치니가 이탈리아 공산당(PCI)을 창당하면서 『신질서(Ordine Nuovo)』는 새로운 공산당의 일간지가 되었고 공장평의회 운동은 막을 내렸다.

독창적이고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던 공장평의회 운동이 커다란 결실을 보지 못하고 도중하차한 이유는 기존 노동운동 조직과의 마찰과 지나친 노동자 중심성(어느 정도 조직 효율성과 지도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부조직원들에게 의존한 점), 당시의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을 포함한 여러 요인들이 어우러진 결과였다. 그람쉬는 이를 계기로 당과 지식인 문제, 그리고 헤게모니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1920년의 총파업으로 토리노와 밀라노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여 독자적인 경영과 자주적인 생산에 참여하는 등 노동운동사에 획기적인 성과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력의 부재와 기존 노동조합의 비협조적 태도 때문에 평의회 운동이 실패한 것은 당시 이탈리아 노동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정치 지도부 격인 사회당은 공허한 논쟁과 웅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었고, 직업별 노조, 노동회의소, 산업별 노조, 노동총동맹을 비롯한 기존 노동조직들은 기득권과 영향력, 그리고 세력의 축소를 우려한 나머지 마치 방관자처럼 남아있었다.

러시아 혁명으로 촉발되었던 혁명의 파고는 '붉은 2년' 기간 사이 정점을 지나갔고, 다시 한번 이탈리아 노동계는 자본가 계급과 국가의 대대적 공격을 받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2. 혁명의 좌절과 노동운동의 패배

많은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혁명의 기운은 1920년 9월의 공장점거를 끝으로 전환점을 맞게 된다. 당시 수상이었던 졸리띠는 군대를 파견해 공장점거를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공장주들을 설득하여 타협안을 이끌어 내려고 하였다. 졸리띠는 회계감시 권한을 노조에 부여하는 법안을 입법하여 노동자들의 공장점거를 타결하고자 했다. 국가가 주도하여 혁명을 유도하는 듯한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에 놀란 것은 자본가들이었다. 이때부터 자본가 계급이 혁명적 분위기를 되돌리고 국면 전환을 위한 돌파구를 획책하게 된다.

1920년 10월과 11월에 시행된 지방 선거에서 사회당은 다시 한 번 괄목할만한 성과를 낳았지만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열풍이 꺾이고 있다는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시 지역과 북부 산업지대를 제외한다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지지세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사회주의 성향의 지방 정부가 들어섰으나 노동운동 세력과 사회당 정치가들은 이를 실질적인 국가권력으로 대체하는데 실패하였다.

1920년의 공장점거가 자본가들과 정부의 유화 정책으로 실패하자 국가와 산업자본가 계

7) 보르디가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당위원으로 초기 이탈리아 공산당의 실질적 지도자였다. 나폴리의 청년 소비에트 연합이라는 단체를 기반으로 20세기 초 이탈리아 공산당 최고의 지도자였다. 완고하고 비타협적 성격으로 다소 교조적인 공산주의자였다. 코민테른과의 마찰로 이탈리아 공산당 내의 소수파가 되기까지 20년대 이탈리아 공산주의 가장 대표적인 논객이자 사상가였다.

급은 노동계급 전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계획을 세웠다. 더군다나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제 공황은 노동운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경제 공황으로 수많은 공장들과 기업들에서 노동운동의 폭력성을 문제삼아 열성 조직가들을 해고·정직시켰고, 이를 통해 노조활동 자체를 무력화하고자 했다. 또한 공장 시설의 자동화와 미국식 대량생산 체제로 소규모의 동업조합이나 수공업 형태의 노동자들은 희생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와 같은 부정적 상황은 노동운동 지지자들을 이탈시켰고, 노동자들도 이를 둘러싼 논쟁으로 정치와 조직 면에서 보다 발전된 상황으로 전진할 수가 없었다. 노동총동맹의 조합원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노동자들이 파시스트에게 포섭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노동자들에게 이념이란 그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보장해 주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짧은 노동의 역사만큼 노동자들의 노동 의식 역시 확고하지 못하고 깨지기 쉬웠다. 실제로 당시 사회당의 핵심인물이었던 세라띠⁸⁾와 같은 이들은 우호적으로 조성된 혁명 분위기에서도 노동자들의 의식문제를 거론하며 혁명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고, 오히려 유럽 각국의 정치적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를 결정적으로 확인해준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조직적 노동운동은 희생불능의 길로 빠지게 되었다. 1920년 11월21일 볼로냐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지방 정부의 출범을 기념하는 예식이 열렸는데 파시스트들이 이 식장에서 군중들을 향하여 폭탄을 던진 사건이 발생했다. 9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당한 이 사건은 향후 이탈리아에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파시스트들이 부상할 것을 예고해 주는 것이었으며, 아울러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세력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조짐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2. 68운동의 노동운동사적 의미

2-1. 68운동의 경과와 대상

현대 사회의 물질적 풍요와 가치의 다양화라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새로운 현실은 기성세대뿐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왔다. 어느 샌가 이것은 곧 세계적 현상으로 표출되게 되었다. 흔히 68운동으로 불리던 세계적 현상은 이탈리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현대 국가라고 하지만 1960년대까지 이탈리아에는 매우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봉건성이 남부를 비롯한 지역 곳곳에 남아 있었다. 가톨릭 전통과 농업사회 특유의 보수적 사고가 사회의 전반적 기조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가 가정과 학교, 교회와 일터 등에서 68운동의 세찬 파고에 제대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다. 변화의 흐름 가운데서도 '4P'로 지칭되던 상징적 부분에서 그 변화와 갈등의 폭은 컸다. Padre(빠드레; 아버지), Prete(쁘레떼; 신부), Partito(빠르띠또; 정당), Padrone(빠드로네; 주인)의 첫 글자를 따서 붙인 '4P'는 당시 사회와 정치 변화의 흐름과 대상이 어떠했던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68운동은 가정에서 부모 자식간의 관계, 교회에서 사제와 평신도의 관계, 현실정치의 주역이었던 기존 정당들에 대한 불신과 정치에 대한 의식변화, 일터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8) 1920년대 이탈리아 사회당의 핵심적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다. 사회주의 전술에 대한 입장을 놓고 다소 기회주의적인 지도 방침을 갖고 있었던 사회당 의원이었다. 결국 그의 지도력에 의문을 갖고 있던 보르디가를 비롯한 포리노의 신질서 그룹이 사회당에서 나와 공산당을 만들게 된다.

관계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 전체의 변화는 노동운동과 노동계의 지형을 바꿔놓을 만큼 커다란 것이었다. 전통적 상하관계, 아니 지배와 복종이 더 정확한 표현이었던 과거의 노사관계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특히 기존의 노동자 대표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노조의 기본방향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요구하며 설립된 CUB(Comitati Unitari di Base; 하층통합위원회)는 기존 노조 활동의 재고와 함께 근본적인 전략변화를 요구하였다.

이런 결과로 기존의 노동조합은 공장평의회(Consigli di fabbrica)를 조직하여 일반 노동자들의 대표성 문제와 조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종전의 내부위원회(Comissioni interne)를 대체하는 공장평의회는 각각의 분야와 직종 및 직급 등을 기준으로 직접 뽑힌 노조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안토니오 그람시의 사상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결국 1969년 12월 당시 최대의 노동조합인 CGIL은 공장평의회를 내부위원회를 대체하는 공식 노조의 합법적인 대표기구로 인정하였다. 이듬해 다시 공장평의회는 금속노조의 전체 대의원회에서 노조의 하부구조로 승인 받음으로써 노동운동 조직의 신기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68운동 과정에서 노동부문 변화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것은 CUB이었다. 68운동이 한창이던 1968년 중순경, 주로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밀라노와 베네치아의 마르케라 항구 등의 대도시에서 먼저 조직되었던 이 조직은 이후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결성되었다. CUB는 당시 CGIL, CISL, UIL 3대 노총이 지닌 근본적 문제제기에는 성공했지만, 조직이 지녀야 할 항구성과 전략 부재에 따른 한계를 노출하였다. 다시 말해 학생운동과 연계하여 사회적 변화를 요구한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노동운동 본래의 전술과 조직에서는 실패하고 만 것이다. 더군다나 3개의 기존 노총은 자신의 한계를 재빨리 깨닫고 기존의 내부위원회를 공장평의회로 신속하게 교체함으로써 기층노동자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담아내고 노동운동 안에서의 영역을 사수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CUB는 기층노동자들의 정서를 직접 담아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긴 하지만, 조직 차원의 한계와 사업장 자치경영이라는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지나치게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되어 68운동이 끝나면서 결국 노동운동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2-2. 뜨거운 가을

68운동 과정에서 노동 분야와 관련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은 1969년 가을에 발생한 '뜨거운 가을(Autunno caldo)'일 것이다. '뜨거운 가을'은 69년 가을 금속노동자들의 계약 갱신을 둘러싸고 벌어진 노동쟁의와 파업사태가 전국으로 번져 노동자 대 사용자라는 큰 틀에서 대결국면을 보였던 68운동의 귀결적 사건이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고 당장 원한다."는 모토가 말해 주듯이 노동계 전반의 근본적 문제제기와 그 해결을 요구했던 커다란 사건이었다.

분열되어 있던 CGIL, CISL, UIL의 3대 노총은 기층 노동자들의 변화 요구에 단호한 결정을 내렸고, 이는 모든 노동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1969년 6월 CISL 산하 금속노조연맹인 Fim의 대의원 총회에서 제기된 《자본주의 체계의 수정》 논제는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68운동이 제기하였던 근본적 요구가 결국 노동계까지 확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당시 이탈리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 회의와 의문을 제기하는 68운동의 상징적 목표를 보여주었다.

삐에레 가르니띠 Pierre Carniti, 브루노 트렌틴 Bruno Trentin, 조르조 벤베누또 Giorgio

Benvenuto가 이끄는 3대 노총 산하의 금속연맹은 전국 규모의 투쟁을 시작했다. 1968년 여름 이 끝날 무렵에 시작된 이 투쟁은 노동자의 도시인 토리노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토리노에 본부를 두고 있던 피아트Fiat사는 몇 달간 지속된 파업이 끝나자 3만5천명의 노동자들을 정직시켰다. 이는 당시 발생한 파업사태와 상황을 단지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악화시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해고와 정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결국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게 되었고,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요구조건과 사용자가 수용하겠다는 제안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었다. 당시 금속노동자 측에서 제시한 주요 제안들은, △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비율(15%~17%)로 임금을 인상, △ 주당노동시간을 현 42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 △ 노동자와 사무직 사이의 임금과 규정을 평등하게 설정, △ 공장 내에서의 유급 집회 권리를 보장 등이었다. 이에 대하여 산업경영자협회(Confindustria)는 거부 의사를 밝혔고, 노동자들은 토리노에서 10만 명이 모여 파업을 시작하였다. 집회와 파업은 곧바로 나폴리, 제노바, 브레시아, 피렌체, 볼로냐, 베네치아로 확산되었다.

계속된 파업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사회경제 정의의 실현이라는 단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집회와 파업 주제의 범위가 직접적인 노동문제 이외에도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주택과 의료, 과세 문제까지로 확대되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립은 11월과 12월까지 이어졌고, 11월28일에는 1만5천명의 노동자가 로마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집회는 당시까지의 이탈리아 노동운동사에서 규모가 가장 큰 집회일 만큼 상징성이 컸다. 집회는 12월12일 아볼라(Avola)로 이어졌고, 집회가 유혈사태로 번져 수십 명이 사망하고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12월14일에는 유혈사태의 희생자 장례식이 개최되었고, 결국 정부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12월19일, 노조는 먼저 Confapi(이탈리아 중소기업연합)와 합의를 체결하였고, 이후에 산업경영자협회와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날 합의된 주요 내용은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하며, 일정 시간의 유급집회 허용 등이었다. 4개월의 기나긴 파업과 집회는 이탈리아 노동운동사에서 중요하고 전환점이 될만한 결과물을 만들었다. 이듬해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자 지위에 관한 법률은 모든 노동 분야에서 노동자들이 파업과 집회 및 노조활동의 권리를 부여한 법안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 것이었다.

이 법률로 인해 공장 안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 사이의 관계가 재정립될 수 있었으며, 68운동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수동적 계층으로 인식되던 노동자가 능동적 존재로서, 사회변혁과 진보의 주요 주체로서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2-3. 노동자 지위에 관한 법률

아볼라Avola의 대학살 이후 노동부장관이었던 사회당의 자코모 브로돌리니Giacomo Brodolini는 노동자 지위와 권리에 관한 포괄적 개념을 담은 법안을 입안하였다. 그것은 사용자에 비해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조 활동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념비적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1969년부터 1970년 초까지 15개월이 넘는 토론을 거쳐 완성되었다. 1970년 5월1일 노동절을 기념하여 공포된 이 법안으로 모든 노동자가 권리와 함께 그에 합당한 지위를 법률로써 보장받게 되었고, 이는 모든 노동 분야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행해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되었다.

입법 과정 중간에 브로돌리니 장관이 죽고, 도나 까딘Donat-Cattin이 취임하여 통과된 까닭에 도나-까딘 법으로 불려지기도 하는 이 법안은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수많은 에피소드와 어려움을 간직한 법안이었다. 또한 사용자의 압제 행위를 반대하고 제한하는 내용과 노동 3권이 적법하게 모든 노동 장소에서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 법안으로 인해 1948년 이후 분열되었던 세 노총이 전후 처음으로 노동절 행사를 공동으로 할 만큼 커다란 상징성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의 기본권이 사용자로부터 노동자에게 돌아갔다. 예를 들면, 과거 사용자의 권한이었던 집회 허용권이나, 집회 참가를 위한 유급휴가권 등의 기본 권리들이 노동자와 노조에 돌아갔다. 둘째로 사용자 측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사용했던 노동자 개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조치들(직장 내에 감시기구를 설치하거나 몸을 수색한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하고 노동자를 차별하는 인권유린 행위 등)을 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노동자의 권리를 노동자에게 귀속시키면서 노조의 합법성과 대표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물론 개개의 노동자 모두에게 그 대표성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포괄적인 개념에서 지역과 생산단위를 기준으로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에게 그 합법성과 대표성을 부여했다는 사실은 국가가 법률로써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보호한다는 원칙을 표명한 것이었다. 이전에는 소규모 공장이나 기업(보통 1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는 대표성을 획득하기 어려웠지만, 지역과 생산단위를 기준으로 대표성을 부여한다는 사실은 개개의 노동자가 단위 조직에 가입하면 어느 정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로 활용되었고, 실제로 70년대에는 이와 같은 유연한 해석이 사업장과 쟁의 과정에서 많이 적용되었다.

2-4. 강력해진 노조와 조직

1969년 '뜨거운 가을'을 겪고 얻은 1970년 5월1일의 노동자 지위에 관한 법률은 이전의 노동자 권리와 노조활동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한 변화들 중에서 가장 커다란 것은 무엇보다 CGIL, CISL, UIL로 나누어져 있던 노동조직에 대한 기층노동자들의 통합에 대한 열망이었다. 1970년 가을 피렌체에서 통합 논의를 위한 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면서 보다 구체성을 띠기 시작한 통합 움직임은 '뜨거운 가을'을 이끌었던 3개의 금속노동연맹(CGIL 산하 금속연맹 FIOM, CISL 산하의 FIM, UIL 산하의 UILM)이 주축이 되었다.

당시 3개의 노총은 국내정치 역학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 정황과도 연결된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통합의 걸림돌은 이와 같은 조직의 내부와 외부 관계들의 복합적인 문제였다. CGIL은 안으로는 이탈리아 공산당(PCI)과 연계되어 있었고, 밖으로는 세계노동총동맹(WFTU)에 가입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CISL과 UIL은 기민당, 사회당, 사민당과 관계를 맺고 국제자유노련(ICFTU)에 가입하고 있었다. 이는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소속 국제연맹으로부터 탈퇴 및 각 정파들과의 합의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당시 집권당이었던 기민당은 노동조직의 통합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CISL 내에서 많은 반대와 연정파트너였던 사민당 계열의 UIL 지도부들의 부정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수많은 반대와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1972년 초에 세 노동조합(CGIL, CISL, UIL) 간에 합의된 '연맹협정'때문이었다.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 기간 3개 노조조직에 대한 기득권과 조직 인정, 둘째 통합조직의 지분에 대한 상호균등 원칙 적용, 셋째 단위노조 사이에도 동일한 형태의 연합조직

을 구성하며, 단체협상이나 노동권에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결국 통합과정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합연맹(Federazione unitaria)이라는 조직체가 건설되었다. 통합연맹은 이탈리아 노동운동사에서 두 번째로 건설된 통합조직이었고, 향후 이탈리아 노동세력의 조직 강화와 세력 확장에 공헌하게 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 할 수 있었다. 1948년 이후 사용자와 국가에게 예속되어 있던 노동자의 관계와 지위가 68년과 69년의 투쟁을 거치면서 상당히 개선된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고, 여기에 기층노동자의 조직에 대한 변혁과 혁신 요구까지 받아들여 이탈리아 노동운동은 새로운 전환기에 이르게 되었다.

개개의 노동자 지위와 조직의 통합은 모든 노동자들이 직간접으로 노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는 곧바로 노조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역량 강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통합연맹은 이탈리아 사회에서 정당과 가톨릭 세력들과 거의 동등한 힘을 가진 하나의 공식 세력으로 인정받았고, 이와 같은 정황은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었다. 이를 계기로 노조는 70년대와 80년대 초까지 국가 경제의 중추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집권 기민당의 세력약화와 야당이던 좌파 세력, 즉 이탈리아 공산당이나 사회당의 정치 세력이 보다 강력해 질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각론 차원에서 노동자와 관련된 정당이나 야당의 정치적 세력 확장은 노조운동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는 역설적 상황을 낳았다. 이탈리아 노동운동은 전통적으로 정치와 다소 분리된 채,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수평적 분리 관계가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정당 우위의 세력재편으로 전환함으로써 수평적 협력관계가 다소 종속적인 수직관계로 이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노조와 정당간의 관계변화는 1980년대 중반이후 경제가 침체하자 노동자에게 불리하도록 국가 정책과 방향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실제로 이탈리아가 경제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하는 국면에서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과 위상은 하락하게 되었다.

II. 그람시 이론과 노동운동의 현대적 함의

1. 그람시의 헤게모니론

1) 헤게모니 이론의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그람시

1968년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촉발되어 전세계를 뒤덮었던 68운동이 정치적으로 실패하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신봉하던 이들은 새로운 대안 이론과 개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로 돌아가면서 세상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승리로 종결되는 듯하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전락해 버렸다. 더군다나 좌파의 많은 지식인들 역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대체할 이론과 개념들을 모색하는 데 실패하거나 좌절하면서, 자유주의가 주도하는 주류 정치의 터널 속에서 진보적 가치를 고물 문히듯 변형하여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명칭으로 우파 체제에 흡수되는 새로운 '변절주의'의 양상을 띠기까지 하고 있다. 이렇듯 어둡고 긴 터널 같은 국제적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의 희망으로 다가서는 인물들 중의 하나가 바로 그람시일 것이다.

1891년 사르데냐의 조그만 벽촌 알레스에서 태어나 1937년 파시즘의 감옥에서 생을 다

할 때까지 그는 참다운 혁명가로서의 삶을 살면서 젊은 날에는 실천과 행동을 통해, 파시즘에 의해 투옥된 뒤 차디찬 감방에서는 동시대인들에게 참다운 이론의 교시를 보이기 위한 평생을 살았다. 안타깝게도 그 이론적 교시는 완성되지도 못한 상태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그 교시의 방향만큼은 오늘날까지도 연구의 대상으로 살아있을 만큼 뛰어나고 현대적인 것들이다. 특히 그가 사용했던 거의 모든 개념들이 오늘의 학자들에게 재해석과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지시하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미완성적인 그의 사상과 글 때문에 이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람시의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으며, 아니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크로체(Croce)로부터 투영된 관념적 신해겔주의 자에서부터 레닌이즘의 투영을 받은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공산주의 이론가까지 그람시의 모습과 색깔은 너무나 다양하고 변화가 심하다. 그럼에도 그의 사상 중에서 비교적 전체적인 모습으로 소개가 가능한 헤게모니 개념은 그람시의 일생을 통해 관통하는 개념이자 이론이다. 그의 단편적이고 미완성적인 글들을 젊은 날의 그람시와 영어의 몸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로 썼던 『옥중수고』까지 연계시켜 종합적인 하나의 이론과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헤게모니 이론이다. 여기에는 그의 삶을 관통하는 실천적 활동과 사고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이론으로서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는 개념을 하나의 이론으로 발전시킨 것이라는 대부분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이 독창적으로 그람시에게 시작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마르크스와 레닌의 계보를 잇는 이론적인 발전을 그람시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발전의 양상과 모습이 후기 산업사회를 설명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영속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유용하고 명료한 설명과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 그것은 그람시가 자신의 지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을 시작했던 곳이 토리노라는 이탈리아 근대 산업화를 시작했던 도시이기에 가능했을까도 모른다. 실제로 그람시는 토리노라고 하는 이탈리아 최대의 산업 도시에서 프롤레타리아와 도시를 구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자신이 평생 추구해야 할 학문의 영역과 사회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했다.

그람시의 그러한 노력의 출발은 저널리스트로서 수많은 문화 평론을 통해 시작되었다. 물론 그람시가 저널리스트로서 처음 글을 썼던 것은 칼리아리(Cagliari) 고등학교 시절 《사르디니아 연합》지의 통신원 자격으로 쓴 1910년 7월 26일자 기사였다⁹⁾. 피오리(Fiori)의 표현대로 과장이나 군더더기 하나 없는 시원스럽고 산뜻한 글이었다. 처음의 출발부터 그람시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과장이나 허세를 보이지 않았고, 이러한 그의 글 스타일은 전(全)생애에 걸쳐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그람시의 지적인 활동은 이후 대학생활에서도 신문의 기고가로, 또 평론가로 계속되었고, 사회당원으로서 정치적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여전히 현실적 실천과 이론을 병행하면서 행동하는 지식 활동을 펼쳐 나가게 된다.

9) *Vita di Antonio Gramsci*, Giseppe Fiori, Laterza, Bari, pp. 76-77.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도 마조레에서 선거가 끝나면 무언가 무서운 큰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다는 풍문이 근처 마을에 퍼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보통 선거제를 단번에 시행하고자 희망하고 있었다. 즉, 지역 수장과 지방 의원을 직접투표로 선출하려 했고 격렬한 수단에 호소할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았다. 길라르차의 헌병 중위 게이(Gay)는 이러한 징후를 몹시 걱정해 중대원 전원을 소집시켰다.... 투표 당일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얼씬거리지 않았다. 선거권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체포될 것을 두려워 숨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당국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가엽구나! 아이도 마조레 마을의 만도라 나무들이여! 과일에 끼는 해충이나 다름없는 보병대가 끼어드니 말이다.*

(2) 젊은 그람시에게 나타나는 헤게모니 개념의 단초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그람시의 젊은 날의 활동들은 주로 언어학부의 학생으로서 자신의 지적 지평을 넓혀나감과 동시에 문화 평론가로서 또 정치 활동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처음부터 그람시가 헤게모니라는 개념과 용어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학문적·이론적 대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는 주장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자연스럽게 헤게모니라는 용어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접하면서 다른 이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성격을 띤 일반적인 관점에서 헤게모니를 접하였다는 것이 통설적이다. 특히 그람시의 글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헤게모니라는 용어가 전적으로 '우위'나 '지배'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그것도 부정적인 의미에서 '세계에서의 영국 헤게모니'라든가 '영국과 독일에 의한 지구의 재분할과 세계 헤게모니의 정복'이라는 식으로 표현됐다. 이는 단순히 그람시가 그의 학문적이고 사상적인 시작을 토리노 대학의 언어학부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초기의 그람시 글들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의미는 이와 같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국제정치학에서 의미하는 세력 간 우위나 지배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언어학이라는 학문은 사용되는 언어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의미와 적용, 그리고 그 해석에 초점을 두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람시 역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의 학문적인 성과나 지적인 성숙도를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람시는 세계 제 1차 대전이후 유럽 전역에 걸친 혁명운동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점차로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권력의 가장 중요한 한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헤게모니를 막연하게 '지도력'이나 '동맹' 등과 유사한 의미로 또 이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론에 국한된 소극적이고 협소한 의미의 헤게모니,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은 관념론적인 의미의 헤게모니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식으로 정립 가능한 권력획득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파악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람시는 어떤 방식으로 또 무엇을 구체적으로 글로서 표현하면서 이러한 의미상의 개념을 획득하고 발전시켰는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것은 실천적 투쟁을 통하여 그람시 자신이 느낀 점들이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통하여 표출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며, 다양한 접촉과 사건들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이론적 정립의 필요성을 느껴 이를 하나의 이론으로서 시도해보고 자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먼저 거론할 수 있는 방법론 중의 하나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해석이 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가장 좋은 본보기적 연구의 귀감은 바로 프란코 로 피파로(Franco Lo Piparo)의 연구이다.¹⁰⁾ 그에 의하면, 그람시가 언어학도로서 이미 헤게모니 개념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그가 사용했던 용어들에 대한 공통적인 의미(공시의)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¹¹⁾. 로 피파로는 초기 그람시의 글들을 분석한 결과, 1917년 2월과 1918년 2월 사이의 1년간 그람시가 썼던 글들에서는 '헤게모니'라는 단어는 물론 그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위신(*prestigio*)'이라는 용어조차도 찾아 볼 수 없다¹²⁾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초기의 헤게모니 개념을 내포하는 글들은 여러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10) Franco Lo Piparo, *Lingua, intellettuali, egemonia in Gramsci*,(Laterza, Roma-Bari, 1979).

11) *Ibid.* nota.

12) *Ibid.* p. 104.

이러한 그의 주장은 젊은 날에 썼던 그람시의 글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더욱 확고해진다. 특히 로 피파로는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헤게모니와 연관시켜 사용되었던 유사한 개념들, '위선', '지배', '동의', '강제' 등과 같은 단어들과 개념에 주목하면서 그람시가 헤게모니 개념을 점차 자신이 추구하는 연구와 분석의 중심 개념과 이론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³⁾ 결국 그람시가 헤게모니 개념을 사용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토리노라는 도시에서 겪게 되는 노동자 문화와 산업화 과정에서의 자본주의 문제들이 사회주의 운동가들이나 마르크스주의를 통해 접하게 되는 이론적인 내용의 구체적인 현실 경험으로 구현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원인에 대해 고민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득권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자본가 계급의 지속적인 정치경제 권력의 유지 요인과 이유를 규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3) 헤게모니 개념의 확장 and 이론화

이후 그람시는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헤게모니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과 내용을 이탈리아 역사 속에서 구했으며, 이를 본격적으로 전개한 것이 『옥중수고』인 것이다. 그람시가 헤게모니 개념을 마르크스나 레닌에게서 전수받은 사회주의적인 개념의 하나에서 보다 발전적인 분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 계기는 1917년 러시아 혁명과 1919년과 20년 사이 유럽에 불었던 혁명의 파고가 썰물처럼 퇴조하던 시기의 직간접적인 경험과 목도였다. 특히 러시아에서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성공과 자신이 직접 조직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던 <신질서>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보다 깊이 있는 성찰과 고민에 전념하였다.

그러한 고민들은 그람시 저작과 글 속에서 집적되고 연구되어 하나의 개념과 이론으로 성립되었다. 이런 점으로 인해 그람시 저서에 등장하는 개념이나 이론들은 그 하나하나에 의미와 학문적 의의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되었던 개념들과 주제들은 앞서 이야기한 '헤게모니' 외에도 '정치사회', '시민사회', '진지전과 기동전', '수동적 혁명', '지식인', '대중문화', '민속', '상식' 등의 수많은 개념들이 있다. 그람시는 이 개념들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거론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과는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 당대의 주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방법론이나 혁명의 완수를 위한 경제적 토대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전개에 치중한 반면, 그람시는 경제적 토대만큼이나 중요한 상부구조의 연결고리들 즉, 의식과 이데올로기의 문제로까지 연구의 초점을 확장시킴으로써 마르크스주의의 지평을 확장시켰다.¹⁴⁾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람시는 앞서 열거한 수많은 개념들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종합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보인다. '정치사회'를 비롯한 여러 개념들을 하나의 일관된 개념으로 묶으려고 했고 그것이 의식과 이데올로기의 종합으로서 헤게모니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하나의 구조로서 역사적 사례, 특히 이탈리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구체화 시킨 것이 역사적 블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부구조에 대한 분석에서 거론

13) *Ibid.* pp. 89~176. 내용 참조.

14) 이러한 평가는 초기 그람시 연구자들이라 할 수 있는 어네스트 라클라우, 샬탈 무페, 앤 S. 사순, 크리스틴 부치 글룩스만, 볼비오 및 살바도리 등에 의해서 확인된 것으로 마키아벨리가 정치학을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근대 정치학을 출발시켰던 것과 유사하게 그람시는 마르크스주의 안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지평을 확장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된 마키아벨리의 새로운 군주를 원용한 현대군주로서 공산주의 정당의 역할과 기능, 진지전과 기동전에 대한 전술적 접근방법, 이를 하위 계급에게 적용하여 대항 헤게모니라는 관점에서 국민적이고 대중적인 문화에 대한 분석, 사회 지도 원리로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진 가톨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분석들은 그람시가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를 역사적 블록이라는 개념으로 종합화 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람시는 실제로 헤게모니라는 용어를 하나의 이론이나 개념으로 종합하여 정리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람시 헤게모니 개념을 언급할 때면 이론적인 논쟁이 야기되거나,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헤게모니에 대해 조금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¹⁵⁾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종합으로서 헤게모니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지배계급의 지도 원리로서 헤게모니를 상정하기도 하며, 동의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헤게모니는 그람시 이론을 종합하기 위한 핵심적 개념이기는 하지만, 어딘가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헤게모니라는 개념 자체가 국가 분석 특히 지배계급 분석을 위한 핵심적 용어로 그람시가 사용했음에도 실제로는 지배계급이나 체제분석에 유용하기보다는 국가권력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람시가 제기하고 있는 헤게모니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국가권력의 위기와 전복 그리고 그 국가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통하여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람시는 국가를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로 구분하여 '강제'와 '동의'가 작동하는 기제에 주목하고, 러시아 혁명의 경험을 통해 헤게모니 작동의 유용성과 시민사회의 견고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람시는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성공하여 체제를 바꿀 수 있었던 동인은 정치권력의 견고함에 비해 시민사회의 안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음으로써 쉽게 정치권력 교체만으로도 체제 자체가 전환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 시민사회의 허약성에 비해 서구사회는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견고함으로 단순한 정치사회의 교체만으로는 체제를 바꿀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시민사회의 존재를 주장했다.¹⁶⁾

15) 그람시 해석에 대한 문제는 이미 잘 알려졌듯이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각 국가별로 상이한 해석의 기준이 존재하며, 어떤 주의를 기준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기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람시의 사상적 연원에 대한 논쟁으로 그람시를 레닌주의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입장과 이탈리아 관념론, 특히 크로체와 절대적 영향 하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람시의 혁명 전략의 성격에 대한 논쟁으로 그의 혁명 전략을 통해 볼 때, 그가 사회민주주의자라는 해석과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라는 해석 사이의 논쟁이 그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사회과학 각 영역에서 그람시를 원용하는 경향이 많아져서 시원적 해석의 혼재 경향에 해당 학문의 이론적 방법론이 결합하고 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탈리아에서 나타난 연구 성과물들의 방향과 저서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람시에 대한 이탈리아의 연구 경향을 간략하게 알아보겠다. Savio Antonella, 2004, *Fascino e ambiguità di Gramsci*, Prospettiva. Frosini F., Liguori G. 2004, *Le parole di Gramsci. Per un lessico dei Quaderni del carcere*. Roma, Carocci. Frosini F, 2003, *Gramsci e la filosofia. Saggio sui quaderni del carcere*, Roma, Carocci. Burgio Alberto, 2003, *Gramsci storico. Una lettura dei Quaderni del carcere*, Roma-Bari, Laterza. Ceradi Cosimo, 2002, *Gramsci e la costruzione egemonia*, La Mongolfiera. Vacca Giuseppe, 1999, *Appuntamenti con Gramsci*, Roma, Carocci. AAA. a cura di Vacca Giuseppe, 1999, *Gramsci e il Novecento I, II*, Roma, Carocci. ecc. 이상의 저서들에서 나타나는 경향은 그동안 그람시 저작에서 다소 덜 다루었던 소주제들-예를 들면 교육이나 예술, 중세의 역사, 종교, 언어 등등의 주제들-을 다루면서 원전을 다시 읽는 방법론에 대하여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영미나 프랑스 및 독일 이외의 국가들에서 그람시를 해석하는 시각 등에 대한 저서들도 출간되고 있다.

16) Gramsci(1975), pp. 1602~1613. 내용 참조.

따라서 시민사회가 강력한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는 기동전보다는 진지전이 중요한 전략이 되며, 기존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있는 문화를 분쇄하고 해체시키기 위해서 '대항 헤게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고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¹⁷⁾ 이렇듯 그람시가 전개하고 분석하고자 했던 헤게모니 개념은 국가가 유지해 가는 통치원리와 함께 주류 문화의 지속성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조직하기 위한 정치·사회·경제 분야에서의 다양한 유기적 방안과 대응책에 주목하였다. 특히 현대군주의 역할을 하는 전위정당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계급 간의 동맹 전술 및 정치사회 보다는 시민사회의 기저와 기반을 공략하는 진지전 전술을 통해 국가권력과 정치사회를 변화시키거나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람시의 의도만큼 『옥중수고』에서 다루어졌던 글들과 이론화의 수준이 만족할만하거나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었던 것은 아니다. 지나친 단편성과 혼돈스러울 만큼 정리되지 않은 개념 정의 등은 헤게모니 개념의 이론화를 더더욱 어렵게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혼돈스러움은 오히려 후세의 많은 연구자들에게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보다 더욱 발전적인 개념과 이론의 정립을 위한 초석과 단초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본서에서 헤게모니 개념의 이론화를 다루는 것이 집필의 목적은 아니기에 그람시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이자 이론으로 설정하는 것에 국한하겠다.

이는 본서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역사적 블록 개념을 설명하는데 헤게모니 개념이 필수적이고 전제적인 개념이자 이론이기 때문이기에 헤게모니 개념과 이론에 대한 간략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헤게모니 개념과 이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그 내용은 본서의 내용 전개에 있어 의미 있는 분석틀과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헤게모니 개념을 통하여 지배계급이나 사회 계층 분석의 중요한 기준과 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의 출발점과 이탈리아 역사에 대한 사전 설명은 역사적 블록에 대한 연구의 준거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람시 이론의 출발점과 역사적 배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질문들과 의문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논의의 요점은 다음과 같은 의문점에 대한 답을 구하는 일일 것이다. 첫째, 그람시가 제시하고자 했던 헤게모니 개념에 대한 해석과 연구는 현재까지 어떤 방향에서 전개되어 왔을까? 둘째, 그람시가 헤게모니 개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셋째, 어디서부터 헤게모니 개념의 이론적 출발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넷째 그러한 그람시는 어떻게 해석되어 왔고, 어떤 현대적인 함의를 갖고 있을까? 다섯째 과연 그람시가 한국사회에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함의가 있을 것인가? 그 외에도 수많은 질문과 의문의 답이 존재할 것이다. 본서에서 이를 모두 다루기에는 내용적으로나 양적으로 너무나 방대한 분량이기에 여기에서는 역사적 블록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의 지배계급과 체제의 상관성을 몇 가지 사례 분석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하겠다.

그람시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¹⁸⁾ 그람시가 『옥중수고』에서 밝히고자 했던 궁극적 목적은 이탈리아의 지배계급의 형성과 지배 메커니즘의 유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 했던 지식인의 역할과 영향 등을 이탈리아의 역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탈리아 통일운동 시기라 할 수 있는 리소르지멘토부터 이후의 남부문제 그리고 새

17) *Ibid.* pp. 801~802. 요약.

18) 그람시는 처형이었던 타티아나와의 편지에서 자신이 옥중에서 집필하고자 하는 책의 내용과 목적 및 서술 방식 등을 밝히고 있다.

로운 이탈리아 통합의 실패와 분열, 그리고 통일 신생국가로서 유럽 무대에서의 경쟁 실패 및 그로 인한 파시즘의 출현은 어쩌면 예견되고 필연적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탈리아 사회의 역사적인 발전경로가 서구의 다른 국가들과는 조금 달랐다는 점은 이러한 파시즘 시대와 그 이후의 근대 국가 성립에서도 충분히 나타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세에서 근대로 갑자기 들어선 이탈리아 근대의 시작은 여러모로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러한 독특한 역사발전 경로를 가진 이탈리아와 이씨 조선에서 근대로 갑자기 떠밀려온 한국의 현대적인 국가 성격 형성과정을 지배계급의 발전과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하게 비교하고자 한다. 이는 그람시 이론의 확장과 적용을 한국 체제와 사회 분석으로 그 지평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를 함께 반영한 것이다.

다양한 구체적인 사례가 가능하겠지만 본서에서는 이러한 비교의 준거점을 하나의 체제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이해의 폭과 적절한 사례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기에, 비교적 유사한 체제로 비교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파시즘 시대와 박정희 시대를 선택하였다. 물론 비교분석의 과정과 내용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초래될 위험이 높겠지만, 굳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공간에서의 시대적 상황이나 조건이 절대적인 유사성을 통해 분석한다는 것은 몇 가지 적절하고 선결적인 설명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적어도 두 시대가 형성되어 유지 하였던 역사적인 전제조건이나 정치사회적인 요인들에 대하여는 일치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공통점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한국 근대의 정치사회나 이탈리아의 근대 정치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과 요인들은 상당히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항에서는 그람시 헤게모니 이론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해석의 관점을 통해 어떻게 역사적 블록 개념과 지배계급 공고성의 상관성을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는 미완성적인 성격의 헤게모니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어떻게 학문적으로 정립되고 체계화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람시 이론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의 주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그람시 헤게모니 개념에 대한 연구경향과 재해석의 방향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그람시를 본다는 것, 또 그를 재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지난한 작업이 될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 전 세계가 '혁명'이라는 단어를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시점에서, 1920년대의 철저한 '혁명가'였던 그람시를 이런 시대적 상황에 적용한다는 것은 어쩌면 무리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이 그람시를 비롯한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예견한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흘러온 만큼, 이에 대한 시대에 맞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그람시 역시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람시가 발을 딛고 살았던 1920년대의 이탈리아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시기의 그람시 자신의 시각을 통해 1920년대의 상황을 유기적으로 조망함과 동시에, 이를 오늘날이라는 시점에서 새롭게 적용하고 해석하여 한국사회에 적용 가능한 이론과 개념을 제시 하였던 선구자의 모습으로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한 그람시로 재해석하고 활용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 그람시가 소개된 지도 벌써 30여년이 되어 간다. 낯선 개념과 이론으로 우리를 당혹하게 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학문적 이정표와 동기를 부여하기도 했던 이탈리아의

정치 사상가였다. 헤게모니 개념과 시민사회 이론으로 한국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그람시는 19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수많은 지식인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1984년 최장집 교수에 의해 한국사회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던 그람시의 헤게모니론 역시 이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된 것은 우리 사회의 학문적 풍조를 그대로 돌아보게 한다. 그렇다고 헤게모니 개념이 언제까지나 유용하고 참신한 '상품성'이 있다는 주장은 더더욱 아니지만, 적어도 헤게모니 개념과 이론은 한국사회 분석을 위해서는 분명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고찰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이 한국사회 분석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람시 연구와 분석이 이탈리아의 사회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분석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사실과 그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저술과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했던 것이 이탈리아 자본주의 체제의 성격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그람시를 원용하여 한국사회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그리고 그람시를 어떻게 한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의 예시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에 대한 연구 결과들과 그에 대한 한국적 유용성을 찾아보려는 의도를 갖고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전개의 목적은 현재까지 축적된 헤게모니 관련 외국의 연구 결과물들을 통해 그람시 해석의 방향과 내용을 고찰해보고, 그람시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영미계열의 연구와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의 라틴계 연구 및 기타 제 3세계권 연구결과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비교하면서 국가와 지역에 따른 연구 결과물들이 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돌아볼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부분으로 대별하겠다.

첫 번째 항은 그람시 헤게모니 연구에 대한 외국의 결과물들과 방향을 다루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장은 한국에서의 연구 결과들과 경향에 대한 내용을 취급할 것이다. 이는 외국과 한국이라는 두 개의 공간을 기준으로 그람시 연구에 대한 비교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그람시 헤게모니 이론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두 공간에서의 그람시 헤게모니론의 연구 결과를 비교하면서 본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구성체 논쟁의 핵심 개념으로서 역사적 블록의 한국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1960년대 이후 영어권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람시 연구는 헤게모니론 이외에도 다양한 개념과 영역에서 진행되어 왔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후기 산업사회의 사회분석에서 지체되고 좌절되어 온 연구의 실마리를 그람시 헤게모니론을 통해 분석하려고 했던 사례와 결과물들은 중심으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면서, 아울러 현재의 연구 방향과 결과물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동시에 그람시 연구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 50년대부터 행해졌던 연구 사례와 결과물들은 영미권을 통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를 함께 돌아보고, 기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 진행되었던 그람시 연구 결과들과의 차이는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서양에서 재해석되고 그려진 그람시의 이론과 논의들이 1980년대 중후반 한국사회에 소개되면서 나타난 연구 경향과 결과물들은 어떤 상호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한국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 또는 적용되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결론 부분에서는 그람시 헤게모니 개념을 중심으로 그람시 이론화 나아가 그람시주의의 한국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미래의 연구 방향에 대하여 서술할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한국에서 그람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 분석에 어느 정도 유용한 분석

들과 패러다임을 제공했는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여 그람시 이론의 한국화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4-1) 외국의 연구를 통해 본 그람시 헤게모니론

그람시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한 국가는 이탈리아였지만, 학문적인 영향력을 갖기 시작한 것은 신좌파와 프랑스 및 독일 등의 여러 국가의 정치 사상가들에 의해 그람시가 원용되면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이론에 반영되면서부터였다.¹⁹⁾ 가장 먼저 그람시 연구의 초석을 다진 이들은 신좌파(New Left) 그룹이었다. 스튜어트 휴즈(Stuart Hughes), 페리 앤더슨, 에드워드 톰슨, 레이몬드 윌리엄즈, G. A. 윌리엄즈 등은 그람시에 대한 발견과 재해석을 통해 그람시 이론의 단초와 소개를 시작했다. 알튀세르, 발리바르, 부르디외, 그리고 데리다 등을 중심으로 프랑스에서도 1960년대 초반부터 그람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독일에서는 프랑크푸르트학파가 중심이 되어 그람시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람시의 다양한 개념과 이론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헤게모니 개념이었다. 영어권 국가에서 그람시 헤게모니 개념을 가장 먼저 종합하고 해석한 이는 G. A. 윌리엄즈라고 볼 수 있다.²⁰⁾ 그는 1960년 한 역사 저널에 그람시 헤게모니 개념에 대한 문화적인 해석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²¹⁾ 문화적이고 지적인 측면에서의 헤게모니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설명한 윌리엄스의 연구 결과는 1960년대 오랫동안 많은 관련 연구자들에게 주요한 기준을 제시했지만, 그람시를 마르크스나 레닌과 결별시키면서 학문적 영향력은 축소되었다.

보다 학문적인 수준에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네언(Naim)과 앤더슨의 연구였다. 데이빗 포가치는 네언과 앤더슨의 연구 결과를 평가하면서 글이 갖는 그람시적인 특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²²⁾ 첫째, 이 글들에는 국민의 역사가 갖는 독특함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존재한다. 둘째, 네언과 앤더슨은 역사적인 장기 분석과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을 상호 교직시키고, 이를 통해 좌파의 전략적인 정책을 이끌어 내려는 형식을 취한다. 셋째, 두

19) 최장집 교수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 그람시 사상은 좌로는 유로코뮤니즘의 극좌파로부터 우로는 페이비아니즘적, 사회민주주의적 ‘개량주의’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한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 상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 아파라투스’ 개념, 알튀세르, 폴란차스, 발리바 등에 의해 대표되는 중층적 결정과 사회구성체론을 중심으로 한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 이론, 폴란차스의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국가이론, 크라우스 오페, 제임스 오코너를 비롯한 자본축적과 정통성화의 이중적 기능에 관한 제이론, 아담 쉘보르스키와 마이클 왈러슈타인에 의해 대표되는 계급간 타협의 이론, 웨르난도 카르도소, 귀레모 오도멜에 의한 제 3세계 국가이론에의 수용, 그리고 비정치적 아카데미 마르크스주의라 불릴 수 있는..... 이론의 제변종.....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최장집. 1984. “그람씨의 헤게모니 개념”,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제 18집, pp. 19~40).

20) 물론 그윈 윌리엄스 이전에도 루이스 마크스(Louis Marks)나 핸더슨(H. Handerson) 또는 홉스바움(E. Hobsbawm) 등에 의해 그람시가 임혀지고 원용되었다. 특히 마크스는 *The Modern Prince and Other Writings*라는 제목으로 International Publishers에서 1957년 출간되었다. 이 책은 그람시 사상의 정치적이고 체계적인 소개를 목적으로 했지만, 당시 영국의 반스탈린주의 경향과 맞물리면서 신좌파의 문화적 조류 안으로 편입하였다. 그러나 소수의 독자들과 연구자들만이 주목한 책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그람시 연구가 시작된 것은 레이몬드 윌리엄즈와 톰슨 및 앤더슨과 네언 등이었다. G. Eley. 1984. 'Reading Gramsci in English: Observations on the Reception of Antonio Gramsci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1957~1982', *European History Quarterly*, vol. 14. 참조.

21) (R. Williams 1960)

22) (데이빗 포가치 저/김현우, 신진욱, 허준석 편역 1995, 262~263)

단계에서 분명히 했듯 그들은 경제주의와 확실히 결별한다. 즉 그들은 경제적인 토대와 정치적인 상부구조 사이의 직접적이고 기계적인 연결과 단절하며, 정치적인 지배에서 문화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분석을 시도한다. 넷째, 그들은 역사적으로 임의적인 사회적 지배관계가 '상식'으로 영속화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보여준다. 다섯째, 그들은 노동운동이 경제주의적·조합주의적에서 헤게모니 중심의 문화로 길을 열어 나가지 못한 것, 말하자면 사회 세력들이 블록의 수위(首位)에 스스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하여 비판을 가한다. 네언과 앤더슨의 이러한 해석은 이후 영국에서의 그람시 연구에 하나의 방향성을 고정시켜주었지만, 보다 다양하고 다층적인 그람시 해석과 연구의 걸림돌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후 1967년에 카메트(J. Camette)는 그람시의 전반적인 사상체계와 그러한 사상체계의 역사성을 설명하는 그람시 해설서를 출간하였다.²³⁾ 여기에서 카메트는 그람시 사상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그리면서 이탈리아의 사상적인 전통 속에서 그람시의 위상과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그다지 깊이 있는 이론적인 정교함을 가지고 그람시를 분석한 것은 아니었고, 간단한 해설서 수준이었다. 그람시 연구의 보다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는 1968년에 마르티넬리(Martinelli)와 메링턴(Merrington)에 의해 이루어졌다.²⁴⁾ 마르티넬리의 연구에서는 서구사회에서 발생한 혁명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에 대한 그람시 평가의 유용성을 지적하고 있다. 메링턴 역시 그람시의 마르크스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헤게모니 개념을 비롯한 독창적인 그람시의 개념들을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사건들과 연결시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일반적인 그람시 연구는 그람시 저작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람시를 정치 이론가로서 정치학의 영역에서 다루기보다는 문화비평가의 모습이 강조되면서 영미권 초기 연구들의 한계를 노정시켰다. 이러한 한계를 조금이나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준 것은 1971년 호어(Q. Hoare)와 스미스(G. N. Smith)가 편집한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그람시의 옥중수고 편집본)이었다. 이 책을 통하여 비로소-그람시 저작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람시에 대한 비교적 전체적인 윤곽과 사상적 체계에 다가설 수 있었다. 헤게모니 개념에 대한 이론화와 천착 역시 이 편집본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람시의 영어판 선집은 영미 계열의 많은 그람시 연구자들에게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올 수 있었다. 특히 68운동 이후 자본주의 체제의 공고성이라는 측면에서 후기 산업사회를 분석했던 좌파 계열의 학자들에게 그람시가 던져준 많은 미완성의 개념들과 이론들은 새로운 지평 확장을 위한 디딤돌이었고 계기였다. 헤게모니론 역시 단지 개념적인 측면이나 단편적인 해석의 수준을 넘어 그람시 사상의 핵심 개념이자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편집본의 공헌이 컸다.

이 시기 헤게모니론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계급과 지배계층의 정치적인 권력 유지와 연속성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그람시에게 영향을 미쳤던 많은 기존의 사상가들과의 접목을 통해 다양한 그람시 경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람시의 마르크스주의적 경향, 레닌이즘적 경향, 유로코뮤니즘 경향, 크로체주의적 경향,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경향의 해석 등등의 수많은 해석의 문제가 불어낸 것도 이 시기이다.²⁵⁾

23) (J. Camette 1967)

24) (A. Martinelli 1968; J. Merrington 1968)

25) 그람시가 후기 마르크스주의자로 분류된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전통 마르크스주의자 혹은 수정 마르크스주의자로 해석하는 것은 오랜 전통을 가진다. E. Hobsbawm이나 Williams 등에 의해 시작된 이러한 논의와 주장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여러

그람시 해석의 다양성을 여기서 모두 다룰 수는 없겠지만, 헤게모니론의 발전 과정에서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주요한 전기를 마련해준 몇몇의 연구결과들은 그람시 헤게모니론 이해의 필수적인 기초 자료들이다. 1978년 발표한 앤더슨의 연구는 그런 의미에서 그람시 해석의 주요한 전환기적 의미를 다룬 논문이었다.(Anderson P. 1978) 앤더슨은 영국의 전통적인 그람시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음과 동시에 지나친 확장이나 무리한 해석에 대한 경고를 그람시의 이항대립적 용어의 분석을 통해 전개하고 있다. 특히 헤게모니와 관련하여 동구와 서구, 국가와 시민사회, 진지전과 기동전, 동의와 강제, 지배와 헤게모니 등의 이분법적 대립 구조를 통해 헤게모니 개념이 갖는 서구적 의미에 대하여 비판적임과 동시에 절제된 분석의 틀을 보여주었다.

영미권의 그람시 연구는 다소 경직적이고 도식적이던 방향에서 탈피하여 최근에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²⁶⁾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헤게모니라는 용어 사용의 빈도와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는 피터 이브스의 저서는 그람시 저작이 갖는 언어적인 모호성과 의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Howard D./Klare(ed.) *The Unknown Dimension: European Marxism since Lenin*(New York: Basic Books, 1972); Markovic M. 'L'unita' di filosofia e politica nel Gramsci', in P. Rossi(ed.), *Gramsci e la cultura contemporanea*(Roma: Editori Riuniti, 1967); Marramao G. *Marxismo e revisionismo in Italia*(Bari: De Donato, 1971); Piccone P. 'Phenomenological Marxism', *Telos*, no. 9. Autumn 1971; Piccone P. 'Gramsci's Hegelian Marxism', *Political Theory*, Feb. 1974; Piccone P. 'From Spaventa to Gramsci', *Telos*, no. 31. Spring 1977; Long T. 'Marx and Western Marxism in the 1970's', *Berkeley Journal of Sociology*, vol. XXV. 1980) 등이 있다. 레닌이즘적 경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톨리아트(Togliatti)에 의해 지도되던 PCI에서는 레닌주의적 측면이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었다. 톨리아티 이외에도 그루피(Gruppi), 마키오끼(Macchiocchi) 및 데 조반니(De Giovanni) 등을 중심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비판하면서 레닌을 넘어서 그람시를 강조한 이들이 피코네와 보그스 등이다. 그러나 이들은 헤겔주의적 전통에 입각하여 그람시의 관념론적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된 후기 마르크스주의자로 해석하고 있는 한계를 나타냈다. 이에 대하여는 Piccone P. 'Gramsci's Marxism: Beyond Lenin and Togliatti', *Theory and Society*, no. 3. Winter 1976; Boggs C. *The Impasse of European Communism*(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82)를 참조하시오. 그람시에 대한 레닌이즘의 전통은 다시 유로코뮤니즘으로 연결되는데, 이는 레닌이즘의 전통에 섰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결되면서 1970년대 후반 카릴로(Carillo)와 클라우딘(Claudin) 및 마르자니(Marzani) 등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하여는 Carillo S. *Eurocommunism and the State*(London: Lawrence & Wishart, 1977); Claudin F. *Eurocommunism and Socialism*(London: New Left Books, 1978); Marzani C. *The Promise of Eurocommunism*(Westport, Conn.: Lawrence Hill and Co., 1980)을 참조하시오. 그람시와 유로코뮤니즘을 잇는 주요 연구들은 그람시에 대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경향의 해석은 전통적으로 1970년대 이후의 그람시 연구에 대한 이탈리아 PCI의 공식적인 입장의 하나였다. 그람시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적 경향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Cammett J. 'Socialism and Participatory Democracy', in G. Fischer(ed.), *The Revival of American Socialism*(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Karabell, 'Revolutionary Contradiction: Antonio Gramsci and the Problem of Intellectuals', *Politics and Society*, vol. 6. no. 2, 1976.; Adamson W. *Hegemony and Revolution: A Study of Antonio Gramsci's Political and cultural Theory*(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Bobbio N. 'Gramsci and the Conception of Civil Society', in Mouffe C.(ed.) *Hegemony & Socialist Strategy*, (tran.) Moore W. & Cammack P. (London: Verso, 1985); Salvadori M. 'Gramsci and the PCI: Two Conceptions of Hegemony', in Mouffe C.(ed.) *Hegemony & Socialist Strategy*, (tran.) Moore W. & Cammack P. (London: Verso, 1985) 등이 있다.

26) Morton A. D. *Unravelling Gramsci: Hegemony and Passive Revolution in the Global Political Economy*(London: Pluto, 2007); Ives P. *Language And Hegemony In Gramsci*(London: Pluto, 2004); Crehan K. *Gramsci, Culture and Anthropology*(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Renate Holub. *Antonio Gramsci: Beyond Marxism and postmodernism*(London: Routledge, 1992).

미론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분석이라는 점에서 그람시가 사용했던 용어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해당한다. 르네 홀럽의 연구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구축이라는 새로운 전환기인 1990년대에 그람시주의 혹은 그람시 연구에 대한 포스트 모던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크리언의 연구 결과는 문화인류학의 토대 속에서 새로운 그람시에 대한 다른 접근이라는 시각으로 21세기적 지평 확장의 단초를 열고 있다. 그녀의 연구에서 그람시에 대한 인류학적인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서구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이나 신흥 공업국 및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들에 대한 접근 방식과 분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그람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모튼의 저작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세계경제의 새로운 구도 속에서 그람시가 주창했던 경제주의적인 해석을 통해 국제관계의 영역에서 새로운 헤게모니를 지속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새로운 분석틀과 질서를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세계정치질서라는 보다 확장된 영역으로의 그람시적인 시각에 의한 분석은 콕스(Cox) 이후 그람시에 대한 주요한 연구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질서의 결합으로서 국제기구들의 총합과 세계질서의 집합적인 이미지를 통해 국제질서 상의 헤게모니를 해석하였던 콕스의 해석은 이후 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²⁷⁾ 자본과 노동의 요소를 새로운 전환기적인 요소로서 중요한 분석 요소로 상정했던 빌러(Bieler)나 유럽에서의 계급 형성과정을 통해 계급 전환이라는 시각에서 유럽연합(EU)의 통합과정을 새로운 국제질서로 파악하고 있는 반 아펠돈(van Apeldoorn)과 모튼 등은 이러한 전통의 계승자들이다.²⁸⁾

영미권 국가에서의 그람시 연구는 오랜 전통 속에 문화주의적인 출발을 통한 정통성과 환원론적인 해석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그람시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한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좀 더 직접적이고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몇몇 주요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탈리아의 그람시 연구는 이미 알려진 대로 그람시의 처형이 그람시 사망 전에 소련으로 몰래 빼돌린 『Quaderni del carcere; 옥중수고』가 여러 경로를 거쳐 툴리아티 수중에 들어가면서 시작되었다.²⁹⁾ 다시 말해 1940년대 후반부터 직간접적으로 그람시의 저작들이 출간되면서 그람시에 대해 주목하였다. 당시 반파시즘 투쟁의 중심 역할을 했던 PCI에게 그람시는 당세를 확장하고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하는데 유용한 수단임과 동시에 주요한 사상적인 기반이자 유산이었다.³⁰⁾ 특히 당시 PCI를 이끌고 있던 툴리아티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그람시의 레닌주의적인 경향을 강조하면서 그람시를 레닌주의자로 묘사하였다. 레닌주의자로서 그람시 혹은 스탈린주의자로서 그람시에 대한 다소 경직된 연구 방향은 당시 PCI가 소비에트 연방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고 있었던 유럽 최대의 공산당이었다는 사실에 일부분 기인한 것이긴 해도 그람시에 대한 편향적이고 파편적인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툴리아티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경향은 그루피와 데 조반니 등으로 이어지면서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지배적이었던 유로코뮤니즘으로 연결되었다. 이탈리아 내부에서 이러한

27) (Cox 1981, 135-139; 1983, 168-174; 1987, 149-150 & 396-398)

28) (Bieler 2000; van Apeldoorn 2002; Morton 2001)

29) 1940년대 이탈리아에서 전개된 그람시 연구와 저작들은 이미 상당한 양이 축적되고 있었으며, 툴리아티 등의 PCI 지도부에 의해 당 차원의 연구 사업이 진행될 정도였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오. Fondazione Istituto Piemontese Antonio Gramsci. 1994. *Gramsci Nella Biblioteca Della Fondazione*. Regione Piemonte.

30) (Mouffe.Sasoon/김현우.신진욱.허준석 역 1995, 211~254)

연구 경향이 좀 더 다양한 방향성을 갖게 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였다. 톨리아티의 그람시에 대한 접근은 이탈리아 노동운동사와 PCI라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었지만, 그람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은 헤게모니 개념에 대한 보다 다차원적인 접근에 의해 이루어졌다. 헤게모니의 형성과 유지 및 보존이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계급 차원에서 논의하면서 헤게모니 형성을 위한 수단의 다양성과 다수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지식인의 역할과 현대군주로서의 당(공산당 PCI를 의미)을 강조했다라는 점은 헤게모니 개념을 노동운동의 지평에서 정치권력과 정치 자체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분수령이었다. 이러한 분석에 가장 먼저 기여한 사람은 라지오니에리(Ragionieri)이다.

라지오니에리는 1967년 칼리아리에서 개최된 제 2회 그람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자신의 논문에서 톨리아티의 입장에 대한 연장선에서 그람시의 국제적인 지평 확장을 주장하였다.(Ragionieri E. 1967) 라지오네리가 주목한 그람시 사상의 핵심은 서구에서의 정치적인 상황 변화를 통해 그람시가 이탈리아적인 상황, 즉 혁명 파고의 퇴조와 파시즘의 등장, 1929년 세계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적절한 전략의 부재 등의 국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다양하고 가변적인 전략의 창출을 국제노동운동의 지형 위에 그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라지오네리 이외의 또 다른 사상가로 꼽을 수 있는 이가 봄비오이다.

봄비오 역시 라지오네리와 함께 1967년 제 2회 그람시 학술회의에서 그람시의 시민사회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람시 시민사회 개념이 갖는 의미를 헤겔이나 마르크스와의 차이점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Bobbio N. 1967) 봄비오는 그람시 시민사회의 개념이 갖는 이데올로기적·문화적 복합체에 주목하면서 특정 사회계급의 헤게모니 조직의 수단으로서 그람시의 시민사회를 정의한다. 마르크스 역시 시민사회가 역사적인 발전과정에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계기에 대해 주목하지만, 그람시의 시민사회와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의 경우 시민사회가 토대 안의 구조로서 존재하지만 그람시에게는 상부구조로서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이다. 이는 마르크스가 경제로 설명하는 역사의 추동력이 그람시에게서는 이데올로기로 나타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봄비오는 그람시를 단숨에 상부구조의 민주주의자로, 그리고 정치사회보다 시민사회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정치사상가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봄비오의 주장은 서구 민주주의 사회를 분석하는데도 유용한 그람시 해석의 중요한 기준을 마련해주었다.

이외에도 마시모 살바도리나 데 펠리체, 파올로 스피리아노, 아우치엘로(Auciello) 등의 연구들도 그람시 해석에 주요한 의미와 해석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다. 살바도리의 경우 이탈리아 공산당과 공장평의회들의 이중적인 성격을 헤게모니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역사적인 과정 속에 구현되고 발전되어 온 헤게모니 개념을 이론적으로 치밀한 고증을 통해 증명하려고 하였다.(M. Salvadori 1976, 33-54) 이탈리아 파시즘 연구가로 알려진 데 펠리체는 당대의 주요 인물들을 통해 그람시의 이론과 개념의 영향 관계를 추적함으로써 헤게모니 개념과 이론이 발전 경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한다. 이에 반해 스피리아노는 전통적인 PCI의 입장에서 후기 마르크시스트 계열의 좌파 사상가로서 그람시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이탈리아 공산당의 역사를 다른 방대한 분량의 책을 통해 그람시의 사상과 주요 이론들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경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³¹⁾

지금까지 논의되고 진행되어온 이탈리아에서의 연구결과물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축정이 어려울 만큼 상당한 분량과 결과물들이 축적되어 있다. 전술한 그람시의 연구결과들은 전통적으로 그람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해석 논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오

31) (P. Spriano 1977)

면 그람시 연구에 대한 전환과 새로운 영역에서의 논쟁들이 야기되었다. 영국이나 앵글로 색슨계 국가들과는 달리 이탈리아에서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전통의 시각에서 문화주의자로서 그람시가 새로이 조명된 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 문학, 언어학, 희곡이나 드라마 그리고 영화 등을 아우르는 예술 전반에 대한 그람시의 논의들,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의 이탈리아에 대한 국가 성격과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재해석 등이 이 시기에 제기되었던 그람시 관련 연구들이다.

이외에도 500여 편의 그람시 관련 연구논문들이 이탈리아의 주요 학술지에 발표되었다.³²⁾ 21세기 이탈리아에서 그람시가 여전히 유용한 학문적인 지표이자 기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관계와 국가의 성격 그리고 세계정치질서의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그람시 헤게모니 개념의 유용성은 아직까지 유효할 것이다. 또한 그람시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경향 중에 두드러진 방향의 하나는 유럽통합과 관련한 것이다. 유럽연합을 하나의 국민 국가(Nation State)의 부활로 볼 것인지, 새로운 국제정치질서의 지역통합체로서 하나의 행위자(actor)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 속에서 그 성격과 내용에 대한 그람시가 제시하고 있는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유의미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질서의 재편이라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헤게모니적인 구성체이자 기구로서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와 국제기구들에 대한 성격 분석은 이러한 분석틀에 의한다면 여러 모로 유용할 것이다.

이탈리아의 그람시 연구 결과들은 인접한 프랑스에서도 즉각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전통적으로 사회주의와 진보적인 성향의 철학적인 특징이 강한 프랑스 사상계에 그람시가 끼친 영향은 작지 않았다. 알튀세르와 함께 비교적 먼저 그람시에 대한 연구에 주목한 이는 텍시에르(Texier J.)였다. 텍시에르의 주요 논점은 밥비오나 데 펠리체 등이 주장한 것과 같은 그람시와 마르크스 사이의 불일치를 인정하지 않고 마르크스에 의해 시작된 구조 문제를 그람시가 상부구조 연구를 통해 완성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³³⁾

두 번째로 주목할 수 있는 이는 알튀세르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그람시 헤게모니 개념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논의하면서, 자신의 펼치고자 하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기반으로 삼았다.³⁴⁾ 그는 역사주의적인 관점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에서 그람시의 환원론적인 마르크스주의 경향의 경제주의를 비판하였다. 또한 구체성과 실천의 문제를 구현하는 경험론적이고 자율성을 구현할 수 있는 구조(토대)의 구축자로서 그람시를 정의하고자 했다. 결국 알튀세르가 보기에 그람시의 '절대적 역사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그람시 헤게모니 개념이 갖는 창조적이고 독특한 이론적인 기여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상부구조와 토대의 관계설정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프랑스의 그람시 연구자는 포르텔리(Portelli)이다. 그는 그람시의 역사적 블록(Blocco storico) 개념에 주목하면서 그람시가 발전시킨 역사적 블록 개념을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³⁵⁾ 첫째, 상부구조와 토대간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이를 매개하는 일정한 계층, 즉 전체로서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배계급의 헤게모니 유지와 재창출의 이론적인 토양이 된다는 점에서 주요한 기준이 된다. 둘째, 역사적 블록 개념의 유지 원리로서 제시되고 있는 헤게모니 개념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람시가 하나의 사회체계 내에서 제시하고 문화적

32) Fondazione Istituto Piemontese Antonio Gramsci(1994)와 Fondazione Istituto Gramsci(2006) 참조

33) (Texier J. 1966)

34) (Althusser L. 1969)

35) (Huggues Portelli 1973, xi-xiii)

이고 사회적인 가치들을 공고히 하기 위한 틀로써 헤게모니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지식인 계층에 의해 제시된 헤게모니가 지배계층의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한다고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근거이다. 셋째, 이와 같은 지배계급의 헤게모니가 공고하게 구축되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역사적 블록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포르텔리의 역사적 블록 개념 연구가 지식인이 갖는 역할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확장시켰지만, 국가의 역할에 대한 지나친 경시라는 또 다른 비판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를 분명히 지적한 사람이 부치 글루크스만(Buci-Glucksmann)이다. 그녀는 그람시 저작, 특히 『옥중수고』 속에 나타난 국가 중심의 헤게모니의 이론적인 규명에 집중하면서 진지전 개념을 그람시 사상의 핵심 개념으로 상정하였다.³⁶⁾ 이를 위해 그녀는 동의를 수동적 동의와 능동적 동의로 구분하고 의회민주주의 하에서의 수동적 혁명 개념을 서구 자본주의 국가 분석의 주요 틀로 사용하였다. 결국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권력 구조 변형 관계 분석에 진지전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로의 이행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이론적인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동 시대의 다른 학자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앤 소우스탁 사쑨(Anne Showstack Sassoon)이나 샹탈 무페(Chantal Mouffe)와 에르네스토 라클라우(Ernesto Laclau) 등이 대표적인 학자들이라 할 수 있다. 사쑨는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발전 단계를 분석하고 있는 그람시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기제와 권력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이탈리아의 역사를 통해 그람시가 지적하고 있는 사례들을 20세기 초의 자본주의 국가 위기에서 등장하는 수동적 혁명과 타협적 헤게모니로 설명함으로써 어째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수많은 변혁에도 정치권력과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³⁷⁾

샹탈 무페는 그람시에게서 나타나는 마르크스적인 경제주의 환원론을 비판하고, 국가 확장에 따른 사회적인 토대의 확충 및 사회적인 여러 관계들 간의 복합적인 관계 확장을 통해 헤게모니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변형주의(transformism)와 수동적 혁명(passive revolu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헤게모니의 이데올로기적인 특성에 주목하고 그 형성 과정을 국민적이고 민중적인 수준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 발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공헌을 이야기하고 있다.³⁸⁾ 첫째, 그람시는 이데올로기의 물질성을 강조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둘째, 그람시는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부정하고 주체를 생산하는 실천 요소로서 이데올로기 개념을 제시했다. 셋째, 이데올로기적인 계급귀속성을 부여하는 환원주의의 일반원리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쑨와 함께 그람시의 비환원주의적인 이데올로기 개념에 대해 연구하였던 라클라우 역시 사쑨와 그람시의 가능성을 좀 더 발전시켜 그람시에게서 나타나는 국민적이고 민중적인 개념의 이데올로기적인 특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규명에 노력하였다.³⁹⁾ 그람시가 제시하지 않았던 비(非)계급적인 특징의 이데올로기 요소가 갖는 본질에 대한 규명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라클라우의 작업은 의미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프랑스에서의 그람시에 대한 연구 경향은 이후에도 철학적인 전통을 중요시 하는 학문적인 경향에 따라 다양한 영역들과의 접목을 통해 발전하였다.

36) (Buci-Glucksmann 1974, 19)

37) (Anne Showstack Sassoon 편저/최우길 역 1984, 139-160)

38) (Chantal Mouffe 편/장상철.이기웅 역 1992, 238)

39) (Laclau E. 1977)

(4-2) 한국사회에 그려진 그람시 헤게모니 개념과 이론들

한국 사회에 그람시가 알려진 것은 이미 언급했듯이 1984년 최장집 교수에 의해서였다. 이후 1980년대 새로운 지적 열망의 분출구로서 그람시가 한국 사회의 주요한 학문적인 지표이자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도 이때였다. 영미권과 라틴계 국가들에서 그람시가 받았던 대접을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받았던 것도 어쩌면 유사한 이유였을 것이다. 헤게모니 개념에 대한 논의와 시민사회 논쟁 등은 바로 그러한 결과물이었다.

1980년대 소개된 그람시와 그의 주요 개념들은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하다. 헤게모니 개념을 비롯하여 혁명에 대한 문제 및 사회구성체와 분석에 대한 내용 등은 당시 한국 사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중요한 학문적인 기준을 제공하였다. 많은 논문들과 서적들이 한국 사회에서 출간되었고, 그람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자들이 생겨났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많은 그람시 연구서들이 번역되거나 출판되었다.

논문이나 저서 이외에도 다양한 지면을 통해 그람시 이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을 다룬 이론 논쟁이 있었고, 실제로 그람시의 개념과 이론에 대한 찬반양론과 관점에 대한 다수의 학술 논문들이 발표되어 한국 사회를 흔들여 놓았다. 최장집 교수와 김세균 교수 등을 비롯한 수많은 그람시 연구자들의 논쟁과 다양하고 독창적인 분석이 뒤따른 것도 이러한 학문적인 분위기의 결과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그람시 열풍은 거의 모든 학문들이 그러했듯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유행과 바람이었다. 보다 발전적이고 활용 가능한 그람시 이론의 정착과 한국화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국내외적인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다. 국내적으로는 1987년 민주화운동이 정점을 이룬 시기에 더 이상의 좌파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으로서의 학문적인 유용성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국외적으로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몰락하는 사회주의권 국가들을 목도하면서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 논쟁에 대한 무관심과 무용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람시에 대한 본격적인 재해석과 평가 문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국의 학문의 장에서 그람시는 사라져버렸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람시가 어떤 의미가 있었던가에 대한 논쟁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그람시를 통해 한국사회를 분석하는 유용한 기준점과 학문적인 방향성은 분명히 제시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에서의 그람시 연구가 갖는 몇 가지 난점과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그람시 연구의 출발이 영미권 국가들의 그람시 연구자들에 의해 시작된 이차 연구의 한국적인 재해석이라는 점이다. 물론 영미권 국가들의 그람시 연구자들의 생각이나 연구 결과물들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그람시는 다른 이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서양인 그람시가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의 이탈리아적인 그람시였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람시 연구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 분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그람시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이탈리아 자본주의 사회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 우리에게도 유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체제 성격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되었어야 한다는 면에서 후속 작업이 절실히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그람시 원전에 대한 한국적인 접근 작업이 미비했다는 점이다. 이는 첫 번째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어쩌면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다.

그람시 이론의 한국화가 필요한 것은 이러한 그람시 연구의 난점과 한계를 뛰어넘기 위

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의 단초일지도 모른다. 또한 그람시에 대한 연구 영역을 헤게모니라는 개념에 국한해서 보기보다는 보다 총체적이고 다양한 개념들의 연관성을 통해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확장된 그람시 연구와 헤게모니 이론의 한국화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그람시 이론의 한국적인 적용의 유용성과 한국화를 위해서 본격적인 그람시 이론에 대한 한국적인 함의와 사례의 비교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서에서 본격적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체제분석으로서의 박정희 시대 연구나, 지배계급의 특징과 내용을 담기 위한 역사적 블록 개념의 한국화는 보다 다양한 시도와 사례 분석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5) 그람시의 한국적 적용과 거대담론의 출발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란 용어가 이미 역사의 박물관에나 전시될 개념으로 치부해버린 한국사회에서 그람시를 어쩌서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어떻게 읽어야하는가의 문제는 너무나 진부해 보일지 모른다. 아니 어쩌면 철없는 젊은 학도의 의미 없는 글쓰기 정도로 폄하해버릴 지도 모를 것이다. 이는 그람시가 제시했던 많은 개념과 이론들이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 어떤 학문적 의미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찬찬히 살펴보면 그람시가 제기했던 많은 논의가 개념들이 우리사회의 많은 면들에서 충분히 적용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람시가 가장 먼저 관심을 두었던 '남부문제'는 영호남의 지역문제 외에도 통일 후 등장할 남과 북의 지역격차와 차이성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으며, 토리노에서의 노동운동을 통해 그가 구현하고자 했던 새로운 문화 운동으로서 '신질서'는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에 적합한 '신사회 운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공장평의회'라는 노동자 조직은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파고에 맞서서 노동자 계급의 연대와 동맹을 국제적 차원으로 발전시켜야할 우리 노동운동의 현실에도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람시가 공장평의회 실패 이후 새로운 대항 헤게모니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기층 계급의 동맹을 통한 하위계급의 대중문화 창출에 노력했던 점 역시 대항과 하위계급 문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상황에서 보자면 충분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해방 이후 50년이 넘게 한국사회를 지배해왔던 지배계급의 문제나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영세민으로 대표되는 기층 대중들의 연대문제 등은 바로 한국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이론적인 논의의 핵심주제인 것이다. 지배 계급이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지식인'의 개입과 변질, 지배계급에 맞서는 하층 대중들의 저항과 새로운 헤게모니 창출의 노력과 시도, 국가권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하기만 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시민사회 상층부를 이루는 구성원들, 새로운 대항 헤게모니의 창출에 맞서는 지배계급 블록과 이를 무너뜨리려는 노·농·소시민의 동맹 문제 등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야 하며 현재까지도 그 유용성이 분명한 주제들인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 새롭게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유산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다소 기이한 논쟁점이 되고 있는 박정희 시대에 대한 분석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다. 여러 공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끈질긴 정치적인 생명력을 가진 박정희 체제와 시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람시에 기대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 의미와 유용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고민하게 한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결과를 통해 우리는 이미 확인했으며, 더군다나 정치의 해라고 할 수 있는 2012년의 총선과 대선 결과들은 그람시 이론의 유용성과 미래를 예측하는 시금석으로서의 탁월성에

감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더욱이 박정희 체제의 직접적인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2013년 '박근혜 정부'의 탄생은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연관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청산될 역사의 과정과 내용이 현대나 미래에까지 반복되고 재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역사의 순환성과 경로 의존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그러한 체제 반복을 용인하고 있는 한국사회 내면의 구조와 그 구조를 떠받들고 있는 지배계급의 끈질기면서 구조적인 생명력을 해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접근은 그동안 여러 이론과 방법을 통해 전개해 왔다.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한국적 민주주의'나 '개발독재' 문제 등은 한국 사회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용어이자 논의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현재의 대한민국을 적절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거나 현재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담론과 분석틀의 적용이 필요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람시이며, 그의 수많은 이론 중에서도 특히 '역사적 블록' 개념을 통해 한국사회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한국사회에서 보다 나은 그리고 발전된 정치적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그람시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그람시가 1920년대 파시즘을 분석하면서 가졌던 통찰력이다. 당시 그람시는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이나 이탈리아 공산주의 정당까지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던 파시즘의 실체에 대해 그 누구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짚어내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가들과 지도자들이 파시즘을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중간단계라고 단정할 때에도 그람시는 자유주의 체제가 허약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전체주의 체제 성격을 갖는 체제로서 파시즘을 해석했다. 이는 자유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자본주의 역시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한 대안 체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람시가 주장하고 전개하였던 헤게모니 이론이 갖는 현실적 적실성을 그대로 보여준 해석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 의거 그람시의 분석을 따르자면, 자유주의 체제의 지속성을 보장받고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일반 대중에게 강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새로운 지도자와 집권당의 등장은 더할 수 없는 매력이고 짧은 시간에도 열광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람시의 그러한 분석은 2007년 대선을 분석하고, 나아가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라는 박정희의 딸을 바라보는 정치적 해석을 위한 독특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해방 이후 자유주의 정부의 위기 때마다 전체주의 성향의 독재정부나 군부정부들이 들어섰던 선례도 선례지만, 지난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 체제와 같은 전체주의적이며 독재의 성격을 지닌 정부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체제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은 결국 체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체제를 운영하고 이끌었던 사람의 문제이자, 사람들의 집단의 문제인 것이다. 이를 여기서는 지배계급의 범주로 묶고, 이를 기준으로 한국사회의 이나 같은 연속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람시를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함의는 지배계급의 분석과 관련된 역사적 블록 개념이다. 그람시는 리소르지멘토 시기의 이탈리아의 지배계급 형성과 유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추구했던 지배계급 블록의 형성과정을 추적했다. 그람시는 이 과정에서 개입하고 발생한 지식인들의 역할과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지도력과 민중에 대한 의식의 영향력 확산의 문제를 교육과 이데올로기 전파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지식인이 갖는 체제유지 기능을 강조한 것이며, 하나의 블록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람시가 보기에 "국가는 생산 영역의 구체적인 형태이고 지식인은 통치 요

원을 배출하는 사회적 요소이므로, 강력해진 경제 집단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식인은 국가를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우려고 한다. 그리하여 지식인들의 기능 자체도 절대적인 것으로 파악되며, 그들의 역사적 존재와 존엄성이 추상적으로 합리화된다.”⁴⁰⁾ 이는 전통적으로 지배세력 혹은 기존의 경제적 기반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지식인들은 국가 자체를 절대시하고, 그러한 절대적 국가의 지식인으로서 자신들의 위치를 합리화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결국 하나의 블록 혹은 새로운 블록의 형성과정에서 지식인들의 국가지상주의나 역할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특성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람시 분석이 갖는 함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배계급의 확장이나 편입 그리고 교체 시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적용 가능한 분석과 주제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역시 국가의 위기 시기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존 지배계급과 새로운 지식인 계급의 협력과 동맹 등의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유지되었다는 유추가 가능한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그람시의 두 번째 함의를 찾을 수 있다. 그람시의 역사적 블록 개념을 빌면 우리 사회에서 형성되었던 지배계급의 성격과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던가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국가적 위기 시마다 교체되지 않고 변형된 형태로 여전히 그 지배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람시가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면서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시기는 1987년 전후였고, 보다 중요한 사회변혁이나 의식과 문화의 진정한 혁신을 위해 필요한 그람시 논의는 정작 생략되었거나 빠져 있는 듯하다. 실제로 그람시는 자본의 논리에 익숙하고 유용한 상품의 하나였으며, 더군다나 지금은 그람시가 갖는 학문적이고 사상적인 평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책이 팔리느냐 아니냐의 단순한 자본주의 시장의 경제적 논리만이 남아 있다. 한국사회에 처음 소개되었을 당시 그람시는 특히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보고였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그저 옛 추억이 어린 그 시절의 정치 사상가이자 문화운동가였을 뿐이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시민사회’론으로 또다시 한국의 학문적 유행을 선도하던 그람시는 유행의 끝자락에 도달하자 갑자기 팔리다 만 중고 서적과 같은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이후 간헐적으로 그람시 연구 결과들이나 번역서 등이 소개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거나 사람들에게 잘 읽히는 인기상품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이전에 그랬듯이 매번 다른 사람의 눈과 언어로 표현된 이차적이고 반쪽짜리 그람시를 다룬 책들이 상품으로 나와 있었을 뿐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필자를 비롯한 이탈리아 관련 학문 연구가들의 게으름과 무지가 한몫을 했지만, 어쨌든 한국사회에서 팔리는 상품으로서의 그람시는 여전히 제3국을 경유한 이차적 상품이었고, 그의 이론이나 사상 역시 제대로 한국화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학문적인 측면에서 그람시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데에는 이전과는 다른 방법과 접근이 필요하다. 역사적 기반과 구조적 유사성을 통해 그람시가 주장했던 다양한 개념과 이론들의 한국적 적용의 주요 사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그람시가 파시즘 체제를 주목하면서 사회구성체와 지배계급으로 발전시킨 것은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정치권력에 대한 그람시적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거의 대부분의 정치권력과 집권했던 이전의 모든 정부에 대한 성격 규명에 유용한 것이다. 헤게모니 개념과 연결된 역사적 블록 개념의 한국적 적용은 그런 측면에서 그람시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한국의 역대

40) (Gramsci 1975, 1361)

정치권력과 체제 중에서 그람시가 제기하고자 했던 역사적 블록을 형성하는데 시사점이 많은 박정희 체제가 가장 큰 유용성을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헤게모니 개념의 보다 구체적인 하부 단위로서 사용된 역사적 블록 개념의 그람시적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본격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그람시의 역사적 블록 개념을 통해 한국사회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특히 지배계급의 구성과 구조 분석에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그람시의 이론적 논의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박정희 체제에 대한 비교 적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아가 거의 모든 정치권력에 대한 분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그람시를 한국적 지형에 맞게 재해석할 수 있는 논거이자 이론적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AA.VV. *Il corporativismo, Il neocorporativismo, Critica al patto sociale, ecc.*, 『Il Quadro Sindacale』, 제 5호, 로마, 1999년.
- A. Accornero, *La parabola del sindacato(노조의 추이)*, Bologna, 1992.
- Baccaro, *Il corporativismo in Italia*, 『Rassegna sindacale』, 2호, 2002 4-6월 호.
La teoria del corporativismo rivistata, Democrazia come strumento di coordinamento, 『Rassegna sindacale』, 2호, 2002 4-6월 호.
Il corporativismo "democratico" in Italia, Annotazioni conclusive, 『Rassegna sindacale』, 2호, 2002 4-6월 호.
- A. Bagnasco, *L'Italia in tempi di cambiamento politico(정치적 변환기의 이탈리아)*, Bologna, 1996.
- F. Banca e I. Visco, *L'economia italiana nella prospettiva europea: terziario protettivo e dinamica dei redditi nominali(유럽적 전망에서 본 이탈리아 경제, 방어적인 제 3차 산업과 고정소득의 변동관계)*, Bologna, 1993.
- G. P. Cella(a cura di), *Lavoro, solidarietà, conflitti. Studi sulla storia delle politiche e delle relazioni di lavoro(노동, 연대, 갈등. 정치와 노동관계에 대한 연구)*, Roma, 1983.
- CESOS, *Rapporto 1987/88*, Roma, p.
- CGIL, *Lo Statuto della CGIL(XII Congresso nazionale della CGIL)*, Sede della GGIL Piemonte, Torino, Centro d'Archivio, 1992.
- Dragonetti Silvana, *1883년 93호 법률로부터 1998년 개혁에 이르기까지 공공부문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Come cambia il settore pubblico: dalla legge n. 93 del 1983 fino alla riforma del 1998*, 『Quaderni di rassegna sindacale』, 2002년 가을호, Roma.
- R. Edwards, P. Garonna e E. Pisani(a cura di), *Il sindacalismo oltre la crisi(노조주의 위기를 넘어)*, Milano, 1988.
- EIRR 214, Nov., 1991.
- V. Foa, *Ma le cose possono cambiare. Qualche considerazione conclusiva(그런데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 몇몇 결론들)*, in A. Lettieri(a cura di), *Ripensare il sindacato(노조 다시 생각하기)*, Milano.
- Ginsborg Paul, *L'Italia del tempo presente*, Einaudi, Torino, 1998.

Gorresio Vittorio, *세기의 노동자들I bracci secolari*, Guanda, Parma, 1951.
ISTAT, *94년연감Rapporto annuo '94*, ISTAT, Roma, 1994.
Musso stefano, *이탈리아 노조운동Il sindacalismo italiano*, Milano, Fenice, 2000.
Pizzorno Alessadro, 이탈리아 정치체계에서의 노조들*I sindacati nel sistema politico italiano*, nel 『이탈리아 정치체계Sistema politico italiano』, Paolo Farneti 편집, Bologna, Il Mulino, 1973.
Salvadori Massimo, *좋은 정부의 신화Il mito del buongoverno*, Einaudi, Torino, 1968.
김종법,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역사*, 『노동사회』, 2003년 1/2/3/4-5/6/7/8/9/11/12월 호 및 2004년 1월 호, 노동사회연구소, 서울.
 , *이탈리아 68운동의 사회적 의미 비교*, 『한국의 시민사회와 정치』, 한국정치연구회 제1회 비판정치학대회, 2003년 11월.
 , *이탈리아 마니플리페의 경과와 정치적 의미*, 이론과 실천, 1월호, 2004년.
 , *이탈리아 공무원노조의 약사와 현황*, 『한국 공무원노동조합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공무원노조 관련 학술대회,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3년 10월.
정병기, *이탈리아 노동운동사*, 현장에서 미래를, 서울, 2000.

- 인터넷 사이트 참조

<http://www.cgil.it>
<http://www.cisl.it>
<http://www.uil.it>
<http://www.cobas.it>
<http://www.confindustria.it>
<http://www.aranagenzia.it>
<http://www.rassegna.it> 등등